



10 단계 : 타종교와의 대화

“하나됨의 비밀”

엡 4 : 1 - 6

2011. 11. 16 (수), 11. 19 (토) 강사: 박원호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
허호익 교수 (대전신대 대학원장)

1. 왜 기독교는 세 신(삼위일체)을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입니까?)

1)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2) 만물을 다스리시되 _____ 다스리신다.

3) 만물은 _____ 이루어져 있다.

남 여, 하늘과 땅, 사람과 자연, 뜨거움과 차가움, 밤과 낮...

4) 만물은 _____ 가운데서(_____ 과 _____)

연결되어 있고 _____ 한다.

5) 따라서 이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뫼비우스띠도,

6) 서로 공존함으로써 이 땅의 _____ 역사가 일어난다.

7)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다.

8) 따라서 만물은 하나님을 닮았다.

9) 하나님은 두 분이시지만, (성부와 성자) _____ 안에서
하나이시다.

2. 만일 하나님이 오직 성부 하나님 한 분이시라면?

1) _____만이 가능하다!

2) _____을 없애야 한다.

3) 세상의 _____는 중단되어야 한다.



10 단계 : 타종교와의 대화

“이단 기독교의 분별과 대처 방안”

2011. 11. 16 (수) 강사: 허호익 교수 (대전신대 대학원장, 조직신학)

1. 이단의 교리적 특징

우리말 성경에 등장하는 ‘이단(異端)’이란 용어는 분파 또는 파당(Hairesis)을 뜻하는 희랍어의 번역이다. 이단의 단(端)은 ‘바르다, 옳다, 진실하다’의 뜻이므로 이단은 ‘시작은 같지만 끝에 가서 다르다’는 뜻은 아니다. 이단은 처음부터 바르지 않은 거짓된 사설(邪說)을 의미한다.

기독교 신앙의 여러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치의 공동분모는 사도신경에 잘 드러나 있다. 사도신경을 현대적으로 요약한 세계기독교협의회 현장(WCC, 1961)에는 다음과 같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규정하고 있다.

“성경이 증거 하는 바대로 주 예수께서 하나님과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며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하는 교회들의 협력체이다.”

사도신경과 WCC현장에 나오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교파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치의 공분분모’라고 할 수 있는 본질적 교리가 근거하여 이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 **신론적 이단** : 정통교회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문선명을 육계의 하나님이라거나,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의 새 이름이라는 등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이다.
- 2) **기독론적 이단** : 정통교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믿는다. 교주를 재림예수나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이단이다. 한국에는 자칭 재림예수가 50여 명이나 된다고 한다.

3) 성령론적 이단 : 정통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성결의 영이신 성령을 믿는다. 성령은 영이므로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 보혜사 성령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주장 역시 이단이다. 이만희를 비롯하여 자칭 보혜사도 수십명에 달한다.

4) 삼위일체론적 이단 : 교주의 육계의 하나님이나, 재림 예수나, 육으로 온 보혜사라고 주장하거는 것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외에 서 정통적인으로 이단으로 규정된 양태론적 일신론적 삼위일체론이나 종속론적 삼신론적 삼위일체를 주장하는 것도 삼위일체론적 이단에 속한다.

5) 성경론과 계시론적 이단 : 정통교회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에 관한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는다. 그러나 많은 이단들은 성경 외의 직통계시를 주장하고 성경의 덜 중요한 일부 구절을 제멋대로 우의적으로 해석하여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처럼 주장한다. 그리고 성경의 각 구절은 전후 문맥에 따라 그리고 66권의 전체에 맥락에 따라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성경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연결하여 우의적으로 해석하여 성도를 미혹한다.

6) 교회론적 이단 : 정통교회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땅에 흠어진 모든 교회가 하나의 거룩한 거룩한 공교회(holy catholic church)라고 믿으며 이들 간의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그러나 교주를 신격화하는 이단은 평신도들도 분별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이단들은 정통교회와 다를 것 없어 보이는 세계복음화전도협회(류광수 다락방), 구원파(박옥수), 큰 믿음교회(변승우), 지방교회(위치만 리),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은 한결같이 자기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고
기성교회를 부정한다. 그리고 신천지 장막성전이나 다락방, 전도관
이나 왕국회관과 같은 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한다. 이러한 배타적
교회관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 땅의 흩어져 있는 모든 사도적 교
회가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공교회(on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라는 사실을 부정한다. 따라서 공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공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이라 할
수 있다.

7) 구원론적 이단 : 정통교회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 받아 구원을 얻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나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단에 속해 안식일이나 유월절을 지키거나, 직통 계시를
받거나 죄사함의 비밀을 깨달거나 원죄로 인해 유전된 사탄의 피를
거룩한 피로 바꾸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교묘한 교리로 기
성교회에 속해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배타적인 구원관을 주장하
는 것 역시 이단의 전형적인 주장이다.

2. 이단들의 형태적 특징

1) 탐심으로 이득을 취하는 자 : 영리집단

이단 교주들은 자신을 신격화하여 엄청난 명예와 특권을 누리며, 교
인들의 헌금과 성금을 임의를 사용하고 이를 사업에 투자하는 등 이
윤추구에 급급하며 이를 통해 교주 자신과 간부들이 엄청난 부를 누
리고 있는 것 사실이다. 이단 집단은 재정이 공개되지 않으면 교주가
모든 교회의 재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개교회의 독립 재정운영이 불
가능하다. 심지어 일부 이단은 교인의 헌금으로 사업에 투자하는 영
리집단으로 전락하였다.

2)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 : 밀교집단

신천지는 기성교회의 비밀 침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과 위장의 ‘이리 옷 입기’(마 7:15 참조)라고 합리화하고, 교인 빼가기를 ‘도둑질 당한 밭의 우리 것’ 찾기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기성교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을 ‘모략’(사 9:17), ‘뱀같은 슬기’(마 10:16)라고 하였으니,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없다. 통일교의 최근 경전인 <평화훈경>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밀경전이며, 청평의 통일교 센타의 집회에도 아무나 참석할 수 없다.

종교학자들은 종교를 현교와 밀교로 나눈다. 현교(顯敎)는 교리, 제도, 의식이 공개되어 있고 교단이 민주적 운영되고 재정관리 역시 투명하다. 그러나 밀교(密敎)는 교리, 제도, 의식 이중적이다. 교단운영도 비공개적이고, 재정관리 역시 불투명하다. 다락방 전도협회는 당회나 제직회, 노회나 총회를 부정하고 오직 다락방 전도만 주장한다. 이단 집단은 이처럼 민주적 논의 절차가 전무하며 모든 결정은 교주에 의해 독재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만희가 6000년 감추인 천국비밀의 실상을 자신만이 직통 계시를 통해 보았다고 이 비밀을 실상의 풀이로 전해 받은 자만이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밀교의 형태이다.

3) 호색을 좇는 자 : 음란집단

일부 이단은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좇으며” 성적으로 문란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한다. 한국교회의 이단의 계보상 하와의 타락은 뱀(사단)과의 성관계로 보고 사단의 피를 물려받은 원죄를 부리의 구원을 깨끗한 피로 바꾸어야 한다는 교리는 정득은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정득은은 삼각산 대성심수도원을 세우고 자신을 영모, 대성모(大聖母)라 부름자신이 죄없는 깨끗한 몸이므로 “나와 영체 합일이 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소위 피가름 교리를 주장하

고 실천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주장이 김백문, 문선명(통일교), 박태선(전도관), 정명석(Jesus Morning Star)로 이어지는 한국 사이비 계보상의 큰 획을 이어왔다.

4) 사고를 통제하고 행동을 강제하는 조폭집단

미국의 한 종교학회(freedom of mind)에서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폭력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 개인이나 그 친지의 가입을 강요함, ② 사고 통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함, ③ 탈퇴하지 못하게 강요함, ④ 궁극적인 목적을 속임, ⑤ 이전의 생활과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킴, ⑥ 수치와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살게 함, ⑦ 비판 의식을 마비시켜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함

5) 영적 미혹과 지속적 세뇌의 중독집단

최근 신천지의 신자관리 지침을 보면 이들이 신자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지속적으로 세뇌하기 위한 3단계 지침을 찾아 볼 수 있다.

- 1단계 : 하루 일과 중 교육준비를 우선시하는가? 교사의 언행에 대하여 신뢰하고 따르는가? 교사의 소속 및 직분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가?
- 2단계 : 인간의 정보보다 말씀(진리)을 선택하겠는가? 자기 교회 목자가 우상이고 우상 제물을 먹었음을 시인하는가? 이단이라는 말을 들어도 말씀만으로 구원받음을 시인하는가?
- 3단계 :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핍박을 받더라도 인내하겠는가? 이긴 자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시대의 참 목자임을 믿고 시인하는가? 증거장막성전에 가야만 영생(구원)이 있음을 믿고 시인하는가?

따라서 이단에 미혹되고 세뇌 된 경우 자기 의지로 이단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망상과 중독에 빠지게 된다.

3. 이단의 폐해 - 영혼의 피폐, 가출과 이혼 및 가정파탄

특히 신천지는 집중적인 성경공부를 통한 세뇌 당하고 영적인 미혹되어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의 갈등을 일으키고 마침내 가출과 이혼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러한 가출 사례는 MBC의 PD수첩의 '신천지의 비밀' (2007.5.8)과 CBS의 '신천지 이단이 진화한다' (2008.2.15)는 공중파 방송을 통해 알려져 한국교회와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4. 이단 기독교의 예방과 대처 방안

마지막으로 이단 사이버의 예방과 대처 방안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 교회 밖의 검증되지 않은 성경공부나 서클활동이나 해외단기선교나 문화 예술 활동 참여를 일체 금한다.
- 2) 정체불명의 신앙설문 조사나 낯선 교리나 낯선 기독교 용어를 소개하는 자의 접근을 거부한다.
- 3) 기성교회나 목회자를 심하게 부정하고 매도하는 자를 경계한다.
- 4) 충분한 지식 없이 이단과 교리 논쟁이나 성경 해석 논쟁에 휩쓸리지 않는다.
- 5)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여 이단집단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된다.
- 6) 말씀중심, 교회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 소속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유익과 만족을 누리므로써 이단의 미혹의 실마리를 뿌리 뽑는다.
- 7) 교인과 가족 간의 친밀함을 유지함으로서 이단이 끼어들 틈새를 주지 않는다.
- 8) 교회의 세례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과정에 정통교리와 이단교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특히 청년대학부의 이단 특강을 정례화 한다.

-
- 9) 이단사이비에 대한 상식과 정보가 담긴 총회 홈페이지
(<http://www.pck.or.kr/이단사이비상담소>) 등을 교회 홈페이지 링크
하여 교인들이 이단에 대한 정보를 얻게 한다.
- 10) 목회 사역에서 이단대처 사역의 비중을 늘리고 정기적인 이단대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 11) 이단경계주일을 지키는 등 교회 내에 이단 사이비 예방과 대처
사역을 활성화하여 상시 적극 대응한다.
- 12) 이단에 빠진 이를 조기 발견하여 목회자 또는 개교회의 이단대책
위원회와 가족이 협력하여 초기에 집중적으로 적극 대처한다.